광주 대형마트도 의무휴업 취소 소송

이마트·홈플러스 등 5개구 상대 신청

전남지역도 확산… 지역 상인들 반발

광주·전남지역에서도 대형마트들이 영업규제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지난 11일 광주시 5개구청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 관련 조례에 대해 효력정지를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광주지방법원은 16일 오전 11시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질 경우 광주·전남지역에서도 대형마트들의 영업규제에 대한 행정소송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서는 대형마트 14곳, SSM 17곳, 전남은 여수(대형마트 3곳·SSM 2곳), 목포(〃3곳·〃3곳), 순천(〃4곳·〃13곳)지역에서 매월 두차례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각 대형마트의 본사가 전국적으로 진행 중이며 각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 처분에 대한 절차상 위법성을 문제 삼았다.

이들 대형마트들은 의무휴업 조례안이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강제화하도록 규정한 점과 조례시행을 행정처분으로 보고 이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의 경우 서울 강동·송파구와 달리 조례 제정 당시 대형마트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조례시행을 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보고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았더라도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 과정을 다시 거쳐야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다" 고 판결을 내리면서 광주·전남지역에서도 대형마트들이 행정 소송 준비를 본격화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와 전남도는 현재 지역 사정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례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형마트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지역 중소상인들도 반발하며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등 지역 중소상인들은 "의무휴업일의 상생효과를 무력화하고 국민의 경제민주화 열망을 차단하려는 대기업 측의 딴죽걸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월 2회까지 의무휴업을 재량껏 명령할 수 있다는 유통법을 그대로 조례에 다시 옮기면 된다"며 대기업 유통 3사의 행정소송을 규탄 및 대형점포 추가 입점 저지와 의무휴업일 확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12일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 광주슈퍼마켓협동조합,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광주지부가 광주지법 앞에서 대형마트의 행정소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한은, 기준금리 3.0%로 인하

13개월만에 0.25%P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가 연 3.0%로 인하됐다.

한국은행은 12일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전월보다 0.25%포인트 내린 연 3.0%로 낮추기로 했다.

기준금리는 2011년 5월 3.0%에서 6월에는 3.25%로 오른 뒤 13개월째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장기화하고 있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금리 인하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번 인하 결정은 가뜩이나 불안감이 커지는 가계부채와 물가에 적잖은 압박이 될 전망이다.

가계부채와 물가 압박이 현실화하면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 운용을 둘러싸고 '실기론'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6월말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유로존 통합 은행감독기구를 설립하고 은행권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원칙이 정해졌으나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다.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유럽 재정위기가 각국 실물경제로 옮겨져 글로벌 경기둔화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높아졌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하한 중국 인민은행이 또다시 금리를 낮출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올해 5월 국내 광공업생산은 제조업, 광업, 전기·가스업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년 동월보다 2.6% 늘고 전월보다는 1.1% 증가했다. 올해 2월 이후 4개월째 증가세이지만 증가 폭이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다. 국내 경기도 침체할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국내 물가상승률은 2%대로 떨어졌지만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두 달째 3.7%로 여전히 높다. 체감물가도 부담스럽다.

최근의 기록적인 가뭄으로 신선식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 요인까지 잠재해있다.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반전할 가능성도 있다.

올해 3월 기준 가계부채 총액은 911조 원이다. 이 가운데 100조 원의 만기가 연말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연일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저신용자 신용등급 세분화 등 강도높은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금리 인하 결정으로 가계부채 연착륙은 더욱 쉽지 않게 됐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일·가정 균형' 최우수기업상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11일 오후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제1회 인구의 날 기념 '일-가정 균형 국민추천 경진대회'에서 최우수기업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의 이번 수상은 JOY& FUN 경영방침을 기본으로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 운영, 예고 없는 회식 안하기, CEO와 함께하는 문화체험 및 가족 초청행사 등 일-가정 균형을 위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정착에 노력했다.

또한 출산 직원에 대한 축하용품 지원, 의료비 지원과 다자녀 직원에 대한 호봉가산, 금융권 최초 육아휴직직원 승진 등 저출산 해소를 위해 파격적 제도를 운영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광 광주은행 부행장은 "최근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은행의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육성이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겨줬다"며 "앞으로도 일-가정 균형과 관련된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카스, 참이슬 제치고 주류 브랜드 1위

맥주 카스가 소주 참이슬을 제치고 주류 브랜드 가치 1위에 올랐다.

브랜드 가치 평가업체인 브랜드스탁은 카스의 2분기 주류 부문 브랜드 가치 평가지수(BSTI)가 1000점 만점에 894.5점으로 참이슬(894.4점)을 0.1점 차이로 누르고 수위를 차지했다고 12일 밝혔다.

브랜드스탁이 2003년부터 브랜드 가치를 평가한 이래 주류 부문에서 줄곧 1위를 차지했던 참이슬은 지난 1분기부터 카스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연합뉴스

건설업계 'PF 공포'…올 대출 11조 만기

건설업계 줄도산의 '뇌관'인 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이 올해 11조원가량 만기를 맞는다.

만기 연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부실 사업장은 3조원에 육박한다.

12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들의 PF 대출 잔액 28조1000억원 가운데 30~40%의 만기가 올해 몰렸다.

국민·우리·신한·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PF 만기도래 비율은 평균 39.2%다. 만기도래 비율이 50%를 넘는 곳도 있다.

은행들은 침체된 건설경기 탓에 만기가 돌아온 PF 대출 가운데 부실하거나 사업성이 불투명한 대출을 회수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은행권 PF 대출의 약 9%가 '고정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28조1000억원 가운데 2조6000억원이 부실 대출이란 뜻이다.

은행 PF 대출의 부실은 제2금융권 PF 대출의 부실로 연쇄 작용할 수 있다.

한 사업장에서 제2금융권이 컨소시엄 형태로 시행사에 PF 대출을 하고, 은행이 시공사에 PF 대출을 하는 등의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제2금융권 PF 대출 잔액 18조6000억원도 은행 PF 대출과 사정이 다르지 않아 실제 부실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크다.

당국은 금융권과 건설업계에 'PF 공포'가 커지자 종합 지원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만들어진 'PF 정상화뱅크(부실채권을 사들여 정상화하는 배드뱅크)'의 지원 규모를 늘릴 방침이다.

은행들이 정상화뱅크 사모투자펀드(PEF)에 자본금을 더 출자해 할인 가격으로 각 은행의 PF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장을 A~D 4단계로 평가해 고정이하로 분류된 C · D 등급 채권을 사들이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 과정인 사업장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합뉴스

코스피 41%P 급락 1800선 무너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가 오히려 경기가 악화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지면서 코스피가 2% 넘게 추락했다.

1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날보다 41.00포인트(2.24%) 급락한 1,785.39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가 종가기준 1,80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 4일 1,783.13 이후 한 달여만에 처음이다. 당시에도 세계 경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코스피가 하루 만에 51포인트 폭락했다. 이날 지수는 1.43포인트 오른 1,827.82으로 시작해 보합권에서 움직이다 오후 들어 급격히 낙폭을 확대했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5.55포인트(1.13%) 하락한 486.38로 마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항목	수치
▼ 코스피지수	1,785.39 (-41.00)
▼ 코스닥지수	486.38 (-5.55)
▼ 금리 (국고채 3년)	2.97% (-0.22)
▲ 원·달러 환율	1,151.50원(+10.6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 점망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 국제품질 ISO 9001인증 / 국제의료기품질 ISO 13485인증 /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광주 구)도청옆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광주 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